광주 '세계인권도시 포럼' 개막

'도시와 인권' 주제 18일까지…500여명 초청

학술회의·NGO 세미나 등 인권학습 場 기대

국내외 인권도시와 기구, 단체 등이 참가하는 '2012 세계인권도시 포럼'이 15일 '한국 인권 NGO 만남'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광주에서 개막됐다. 인권도시포럼은 '도시와 인권'(City and Human Rights)을 주제로 오는 18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시청 등지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에는 네팔의 카트만두, 캐나다 몬트리올, 캄보디아 프놈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태국 방콕 등 국내외 인권도시 42개 도시 67명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 유네스코 등 4개 국제기구 5명, 국제엠네스티 등 NGO 6개 단체 11명 등 50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초청됐다.

첫 프로그램인 한국인권 NGO 만남 심포지엄은 이날 오후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와 NGO기획단 주관으로 국내외 인권 NGO와 포럼 관계자 등이 참가해 양심적 병역거부, 성 소수자, 청소년 인권운동,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16일 오전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학술회의가 진행된다.

개회식에는 강경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 부대표와 국제인권변호사인 카렌 체(Karen Tse) 국제정의연대(IBJ) 대표 등이 기조연설을 한다.

강 부대표의 참여는 세계인권도시 포럼을 UN 인권이사회와 연계 추진함으로써 UN과 함께 도시인권에 대해서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학술회의는 2개 세션으로 나눠 인권도시 육성제도 및 장치, 인권도시 지침 등을 주제로 20여명의 관계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와 토론에 나선다.

인권 제도화와 인권운동 역할을 주제로 인권 NGO 세미나도 열리는 등 인권운동가들의 활동 경험과 역할 등을 토론하는 교류의 장이 기대된다.

유네스코(UNESCO) 아태지역 차별반대도시연합 국제회의도 이번 포럼과 함께 16~17일 양일간 특별회의를 개최해 인권과 도시, 사회적 포용, 도시와 지구 환경 변화 등을 논의한다. 17일에는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와 NGO기획단이 주최하는 인권 NGO 세미나 등의 특별회의가 열린다.

16일에는 아프리카에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모기장을 보내는 운동인 'Nets Go! 캠페인'을 올해 모금(7500만원)한 기금을 UN재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포럼 참가자들은 17일 열리는 5·18 전야제에서 인권도시 선언문을 채택해 발표하고 18일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것으로 대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세계인권도시 포럼이 인권 보호와 증진, 인권 학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이희호 여사 5·18민주묘지 참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15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방명록에 '광주 정신은 영원하리'라고 적었다. 이 이사장은 16일 오전 열리는 '2012 세계인권도시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 뒤 여수세계박람회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여객선 요금, 대중교통수단 수준으로 낮춰야"

신안·완도 등 전국 10개 시·군 국가 지원 요구

신안군과 완도군, 고흥군, 인천시 옹진군, 경남 남해군 등 섬으로 이뤄져 있거나 섬을 갖고 있는 전국 10개 시·군이 15일 국가가 여객선 요금 일부를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자치단체는 최근 서울에서 모임을 갖고 "여객선 요금이 너무 비싸 많은 국민들이 섬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여객선 요금을 철도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요금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 면적에 바다 관할 면적을 포함시키고, 농·수산물 해상운송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 13개의 현안을 중앙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모임에는 이들 섬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민주통합당 김영록(해남·완도·진도), 김승남(고흥·보성),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옹진군·중·동구), 여상규(경남 남해·사천·하동) 국회의원도 참석해 현안을 공동으로 풀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수시와 신안·완도·고흥군, 인천시 옹진·강화군, 충남 보령시, 경남 남해군, 경북 울진군은 지난 3월 섬을 활용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회장 정현태 남해군수)'를 발족한 바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시민협력관·교육지원과 신설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광주시는 민선5기 후반기를 앞두고 시민협력관과 교육지원과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2실 7국 2본부 48과 190 담당을 2실 8국 1본부 49과 194 담당 체제로 전환해 1과 4담당이 늘어나게 된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정원 총수는 기존 3106명에서 3116명으로 10명이 증원된다. 일반직은 1448명에서 1495명으로 47명, 연구직은 79명에서 81명으로 2명이 각각 증원되고 기능직은 422명에서 383명으로 39명 감원한다.

시는 기존 자치행정과와 시민소통과로 나눠진 자치행정 기능을 통합해 시민협력관을 설치하고, 교육행정 수요와 지역 인재육성 기능을 수행할 교육지원과를 자치행정국 산하에 신설하기로 했다.

U대회지원본부는 체육U대회지원국으로 명칭변경하고 체육지원과를 이관배치해 2015하계U대회와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 유치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또 문화관광체육정책실을 문화관광정책실로 명칭변경하고 문화수도예술과를 문화수도정책관과 문화예술과로 분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전거정책·하천관리 담당 등을 신설한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안은 1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6월7일 열리는 광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20일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히딩크 29일 광주 온다

시각장애인축구장 개장

2002 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거스 히딩크(FC 안지 마하치칼라) 감독이 오는 29일 광주를 방문한다.

히딩크 감독의 이번 방문은 세광학교 앞 고수부지에 건립된 시각장애인축구장 '히딩크 드림필드 6호' 개장식 참석을 위한 것으로, 월드컵 성공개최 10주년을 맞아 4강 신화를 이룬 도시 광주 방문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히딩크 감독은 지난 2002년 월드컵 이후 우리나라 국민의 뜨거운 열정에 대한 보답으로 한국인을 위해 2003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히딩크 재단을 설립하고, 장애아동과 저소득 어린이를 위한 복지사업으로 2007년부터 히딩크 드림필드(시각장애인축구장) 건립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히딩크 드림필드 6호'는 광주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히딩크 재단이 2억 원을 들여 인조잔디 풋살경기장 1면 규모로 조성됐다.

/홍행기기자 redplane@

광산구, 삭감예산 항목바꿔 편법편성 논란

통장피복비 3200만원 집행…의회 졸속심의 비난도

광주 광산구가 본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편법으로 항목을 바꿔 추경에 편성,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다.

이로 인해 의회의 추경예산 졸속심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이 과정에 해당 부서가 관련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한 사실까지 확인돼 비난을 사고 있다.

15일 광산구와 구의회에 따르면 관내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1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4월 27일 '통장한마음' 축제를 개최했다.

올해는 이 행사를 위해 본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외에 별도로 3200여만원을 지난 3월 추가경정 예산에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편성, 의회의 승인을 받아 통장들의 피복비로 집행했다.

하지만 해당 예산은 2012년 본 예산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의회 심의과정에서 선심성 논란끝에 삭감됐는데도 추경에 '자산취득비'로 항목만 바꿔 편성, 의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명시된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의원들의 선심성 지적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항목을 바꿔 편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광산구의회 이영순 예결위원장은 "심의 과정에서 예산 편성 항목이 바뀐지는 전혀 몰랐었다"며 "문제점이 대두된 만큼 구의회 차원에서 시정하거나 개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당 부서가 2000만원 이상 사업비는 공개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관내 마트에 상주한 2개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는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한 사실까지 드러나 유착 의혹까지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당초 '통장 한마음축제'와 피복비 지급은 별도로 추진했으나 함께 집행하다 보니 발생된 문제로, 일부 오해를 불러온 것 같다"고 해명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민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민주통합당은 15일 당 소속 시·도지사 민생정책 협의회에서 오는 2014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4면〉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소속 9명의 광역단체장과 92명의 기초단체장들은 차별금지 정신을 구현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만 0~2세 이하 무상보육을 모든 아이로 확대하면서 발생한 추가 지방 재원 부담금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올해 3월 현재 부담금 규모는 4900억원이지만, 7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재원은 올해 일반예비비 1조2000억원과 목적예비비 1조2000억원을 사용하고 예비비로 충당하기 어려울 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복지사업을 위한 지방 재정이 고갈된 만큼 재원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회 지방재정분권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앞서 이날 열린 정책협의회엔 당 소속 9명의 시장·지사, 부시장·부지사가 참석,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호소하면서 영유아 무상보육 등 복지확대를 위해선 재정건전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종행기자 golee@

고혈압과 고지혈증 동반질환자 대상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항고혈압 제제와 항고지혈증 제제의 복합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1. 자격 요건
-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
- 고혈압과 고지혈증 동반질환자 (수축기 혈압(SBP)130mmHg/이완기 혈압(DBP) 80mmHg이상,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 Cholesterol) 100mg/dL이상) 대상자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2. 참여 기간
- 본 임상시험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고 서면으로 동의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한 후, 연구에 적합한 경우 약 12~14주간 총 4~5회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하시면 8주 동안 임상시험용 의약품이 제공되며, 정기적인 검진과 임상시험과 관련된 각종 혈액검사, 뇨검사, 심전도검사 및 소정의 교통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실시기관 : 광주기독병원, 전남대학교병원
- 문의처 : 010-4095-1850

전통 침·뜸·부항
무료 공개강좌 & 수강생 모집

◉ 중국 중의약대학과 18년간 학술교류로 체계화된 교육과정
◉ 중의약대학 침구과(3년), 중의과(5년) 학점인정
◉ 해외에서 사용가능한 중국 자격증 취득가능
◉ 중국, 미국 한의대 석박사과정 입학 및 편입가능
◉ 의료개방 대비, 자기 건강관리, 해외봉사를 위한 연수세미나
◉ 해외이민, 한방병원 설립 및 해외진출, 취업지원

"알기쉬운 침구학" 세미나과정
· 기본과정(4개월-주1회3시간)
주요과목 : 침구학개론
(침뜸기초, 경락경혈, 침구치료), 한방기초
· 전문과정(1년)
주요과목 : 중국침구학연수,중의학,경혈학, 진단학,방약학,해부학 등

〈침구기본학 교재〉

공개강좌일정 광주 27기) 5월 25일(금) 오후 2시
위치 : 쌍촌역 1번출구에서 화정역방향으로 50m직진 3층

※ 본 문화원은 침구학 및 대체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CH 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광주분원 : 062)236-3516
서울본원/대전분원/대구분원/부산분원/울산분원/광주분원/제주분원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납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극락전 납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납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벌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떼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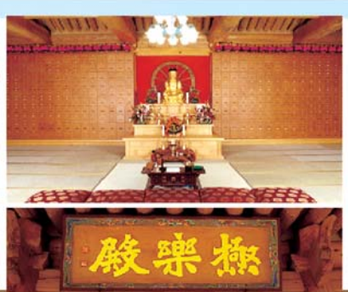
● 비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시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봉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납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납골당 전경



무등산 문빈정사 납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